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仲景書 條文에 대하여

하기태 · 김영미 · 정상신 · 김준기 · 최달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literal study on the textual comments of Zhongjingshu which were cited by Hyangyakjipsung-bang

Ki Tae Ha, Young Mi Kim, Sang Shin Jeong, June Ki Kim, Dall 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textual comments on Shanghanlun and Jinguiyaolue were found in Hyangyakjipsung-bang, the representative medical book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In all 57 chapters of the book, 17 chapters are related to those comments, and only one comment is quoted from all chapters except the chapter of "Shanghanlun" and "Jinguiyaolue". As classified the comments by citation order, Jinguiyang had 14 comments, Zhangzhongjing had 7 comments, Zhangzhongjing had 4 comments, and Jinguiyuhuan had 1 comment. Comparing to the present version, 16 comments were quoted from Jinguiyaolue and 7 comments were quoted from Shanghanlun and 1 comment was quoted from Jinguiyuhuanjing, but the source of 2 comments were not identified. Especially the 1 comment from Jinguiyuhuanjing not only shows the importing date of the book into Korea, but also proves the importance of the book which can refute the supposed source of the book as a reprint by Chenshijie in China. This results showed that Zhangzhongjing's books, which has imported before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had an influence on Korean Medicine. As a result, further research on the medical books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excepting Hyangyakjipsung-bang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Hyangyakjipsung-bang(『鄉藥集成方』), Shanghanlun, Jinguiyaolue, Jinguiyuhuanjing, Zhangzhongjing, Citation

서 론

본 론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東漢의 張仲景의 著作으로 辨證論治의 기초를 세웠으며, 歷代 여러 醫家들에 의하여 재해석되어 임상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의학교류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삼국시대에 이미 독자적인 醫書를 편찬하기도 하였다¹⁾. 특히 고려말에서 시작하여 조선초기 『鄉藥集成方』에 의하여 완성된 鄉藥論은 중국에 의존하던 의학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학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²⁾. 이에 著者は 이 시기 鄉藥研究 대표적인 醫書인 『鄉藥集成方』의 관련 條文을 분석하여, 仲景의 著作과 朝鮮前期 韓國醫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卷四 風病門 (上卷, p.75)³⁾
張仲景: 治六十二種風兼腹內血氣刺痛
紅花一大兩, 分爲四分, 以酒一大升, 煎減半, 頓服之, 不止再服.⁴⁾
又方紅藍子一升, 搗碎, 以無灰酒一大升八合, 拌了, 暴令乾, 重搗篩, 蜜丸如桐子大, 空腹酒下四十丸.

卷五 傷寒門 (上卷, p.84)
傷寒論: 梔子厚朴湯, 治傷寒下後, 心煩腹滿, 臥起不安.
梔子擘十四箇, 厚朴去皮製四兩, 枳實四枚水浸炙令黃. ○右細剉, 以水三升半,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⁵⁾

* 교신저자 : 최달영,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cdydkom@dongguk.ac.kr, Tel : 054-770-2650
· 접수 : 2002/11/26 · 수정 : 2002/12/23 · 채택 : 2003/01/22

1) 김두중 :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98, pp. 47-51
2) 김신근 :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 41
3) 이하 각 조문의 페이지 번호는 5번 참고문헌에 따른 것임.
4) 여기까지 金匱22-16과 유사
5) 상한79과 유사

若嘔者, 梔子生薑湯主之.⁶⁾

梔子擘十四箇, 生薑五兩, 香豉四合綿裹. ○右以水四升, 先煮梔子·生薑, 取二升半, 內豉,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梔子乾薑湯, 治傷寒, 以丸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⁷⁾

梔子擘十四箇, 乾薑二兩. ○右以水三升半, 煮取一升半, 去滓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卷七 傷寒門 (上卷, p.118)

傷寒論: 桃花湯, 治少陰病, 下利, 便膿血者.⁸⁾

赤石脂一斤, 一半全用一半篩末, 乾薑一兩, 粳米一升.

右以水七升, 煮之候米熟, 去滓, 每服七合, 納赤石脂末方寸匙, 日三, 若一服愈, 餘勿服.

卷七 傷寒門 (上卷, p.120)

傷寒論: 豬膚湯, 治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 心煩.⁹⁾

豬膚一斤, 以水一斗, 煮取五升, 去滓, 加白蜜一升, 白粉五合熬, 香和令相得, 溫分六服.

卷七 傷寒門 (上卷, p.123)

傷寒論: 小承氣湯, 治六七日不大便, 腹脹滿, 陽明無表證, 汗後不惡寒, 潮熱, 狂言而喘.¹⁰⁾

大黃四兩, 厚朴二兩炙去皮, 枳實三枚大者炙. ○右以水四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二服. 初服湯當得通, 不爾者盡服之. 若通則勿服之. 又方豬膽一枚, 取汁和法醋少許, 以灌穀道內如一食頃, 當大便出.¹¹⁾ 宿食惡物甚效.

卷八 傷寒門 (上卷, p.139)

傷寒論: 治病在陽, 應以汗解之, 反以冷水噴之, 若灌之, 其熱被却, 不得去, 彌更益煩, 肉上粟起, 意欲飲水, 反不渴者, 宜服文蛤散.¹²⁾ 文蛤五兩爲散, 以沸湯五合和, 一方寸匙服之.

卷八 傷寒門 (上卷, p.140)

張仲景: 厚朴三物湯, 治傷寒雜病, 腹痛脈數.

厚朴四兩, 枳實五枚. ○右以水六升, 煎二物, 取三升, 納大黃二兩, 再煎取二升, 溫服一升.¹³⁾ 腹中轉動更服, 不動勿服.

卷九 暑病門 (上卷, p.155)

金匱方: 治太陽中暈, 身熱疼重, 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一物瓜蒂湯主之.

瓜蒂二七箇. 剉, 以水一升, 煮取五合, 去滓, 頓服.¹⁴⁾

卷十六 癆瘵門 (上卷, p.257)

張仲景: 治冷勞·鬼疰, 一門相染者.

獺肝一具, 火炙之, 水服方寸匙, 日再. 聖濟方: 陰乾爲末, 每一錢, 熟水調下, 如一具未差, 更作服.¹⁵⁾

卷十七 大小便門 (上卷, p.301)

金匱方: 蒲灰散, 治小便不利.

蒲灰七分, 滑石三分. ○右杵爲散, 以飲服半錢日三.¹⁶⁾

二十三卷 心痛門 (上卷, p.369)

金匱方: 大建中湯, 治心胸中大寒痛, 嘔不能飲食, 又腹中寒, 上衝皮起, 出見有頭足, 上下痛而不可觸近.

川椒二合炒出汗, 乾薑四兩, 人蔘二兩. ○右以水四升, 煮取二升, 去滓, 納膠飴一升, 微火煎取一升半, 分溫再服; 如一炊頃, 可飲粥二升, 後更服. 當食糜, 溫覆之.¹⁷⁾

二十五卷 痰飲門 (上卷, p.401)

金匱方: 除痰下氣, 治胸脇脹滿, 上氣喘急, 倚息不得睡臥, 神思昏憤. 桃仁去皮尖麩炒, 人蔘去蘆, 杏仁去皮尖麩炒, 桑白皮蜜炒微赤泔浸一宿倍. ○右等分, 爲細末, 每服二錢, 水一盞半, 薑三片·棗一枚, 煎至七分, 去滓溫服, 不拘時.¹⁸⁾

二十六卷 嘔吐門 (上卷, p.417)

張仲景: 半夏加茯苓湯, 治嘔噦, 穀不得下, 眩悸.

半夏一升, 生薑半斤, 茯苓三兩. ○右咀咀, 以水七升, 煎取一升半, 分溫服之.¹⁹⁾

二十六卷 噎膈門 (上卷, p.419)

金匱玉函: 治五噎心膈, 氣滯煩悶, 吐逆不下食.

蘆根五兩, 剉以水三大盞, 煮取二盞, 去滓, 不計時溫服.²⁰⁾

二十七卷 脾胃門 (上卷, p.425)

金匱方: 治病入胸中似喘不喘, 似嘔不嘔, 似噦不噦, 徹心中憤憤然無奈者, 生薑半夏湯主之.

半夏半斤, 生薑汁一升. ○右以水三升, 煮半夏取二升, 納生薑汁, 煮取一升半, 少冷, 分四服, 日三夜一.²¹⁾

四十八卷 折傷跌撲門 (下卷, p.81)

金匱方: 排膿散, 治金瘡.

6) 상한76조의 일부에 해당

7) 상한80조

8) 상한306조

9) 상한310조

10) 『傷寒論』에는 동일한 조문은 보이지 않으며, 208, 209, 213, 214 등의 조문을 재편집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상한233조 아래의 豬膽汁에 해당

12) 상한141조

13) 금궤10-12조에는 “痛而閉者, 厚朴三物湯主之.”이라고 되어 있으며, 처방 내용은 厚朴과 大黃의 양 및 물의 양이 각각 2배로 차이가 있음.

14) 금궤2-27조에는 瓜蒂二十箇로 되어 있다. 七은 十의 誤記로 생각된다.

15) 『상한론』 및 『금궤요략』에 없음.

16) 금궤13-11조의 일부

17) 금궤10-5조

18) 『상한론』 및 『금궤요략』에 없음.

19) 금궤12-30조와 17-12조의 내용이 섞여 있음.

20) 『金匱玉函經』「附遺」의 條文과 유사함.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 108)

21) 금궤17-21

枳實十六枚, 芍藥六分, 桔梗二分. ○右杵爲散, 取雞子黃一箇, 以藥爲散與雞黃相等, 揉和令相得, 飲和服之, 日一服.²²⁾

五十二卷 中諸毒門 (下卷, p.135)

金匱方: 治噉蛇牛肉食之欲死.

米泔洗頭, 欲一升立愈. 又方, 牛杜細切, 以水一斗, 煮五升, 緩飲之, 大汗出愈.²³⁾

五十三卷 諸救急門 (下卷, p.159)

金匱方: 果子, 落地經宿, 蟲蟻食之者, 人大忌食之.

梅多食, 壞人齒.

李不可多食, 令人腫脹.

林檎不可多食, 令人百脈弱.

橘袖多食, 令人口爽, 不知五味.

梨不可多食, 令人寒中, 金瘡產婦, 亦不宜食.

櫻桃杏多食, 令人傷筋骨.

石榴不可多食, 損人肺.

胡桃不可多食, 令人動痰飲.

生棗不可多食, 令人熱渴氣脹寒熱. 羸瘦者, 彌不可食, 傷人.²⁴⁾

五十三卷 諸救急門 (下卷, p.160)

金匱方: 凡肉及肝, 落地不着塵土者, 不可食之.

豬肉, 落水浮者, 不可食.

諸肉及魚, 若狗不食, 鳥不啄者, 不可食.

肉中如有朱點者, 不可食之.

六畜肉熱, 血不斷者, 不可食之.

父母及身體, 本命肉食之, 令人神魂不安.

食肥肉及熱羹, 不得飲冷水.

諸五臟及魚投地, 塵土不汚者, 不可食.

獸自死, 北首及伏地者, 不可食之, 殺人.

六畜自死者, 皆疫死, 則有毒, 不可食之.

食生肉飽飲乳, 變成白蟲.

馬脚無夜眼者, 不可食之.

馬肉, 不可熟食, 傷人心.

白馬黑頭者, 不可食之.

白馬青蹄者, 不可食之.

馬肉狗肉共食飽, 醉臥大忌.

馬肝及毛, 不可妄食, 中毒害人.

羊肉, 其有宿熟者, 不可食之.

白羊黑頭, 食其腦, 作腸癰.

癩疾人, 不可食熊肉, 令終身不愈.

食狗鼠餘, 令人發癩瘡.

兔肉, 着乾姜食之, 成霍亂.

牛羊猪肉, 皆不得以, 楮木桑木, 蒸灸食之, 令人腹内生蟲.

諸禽肉肝青者, 食之殺人.

麋脂及梅李子, 若妊婦食之, 令子青盲. 男子傷精.

烏雞白首者, 不可食之.

魚頭中無腮者, 不可食之, 殺人.

魚目合者, 不可食之.

六甲日, 勿食鱗甲之物.²⁵⁾

五十三卷 諸救急門 (下卷, p.162)

金匱方: 羊肉, 不可共生魚酪, 食之害人.

豬肉, 以生胡菜同食, 爛人臍.

豬脂, 不可合梅子, 食之.

兔肉, 不可合白雞肉, 食之令人面發黃.

雞子, 不可共葫蒜, 食之滯氣.²⁶⁾

五十六卷 女陰門 (下卷, p.215)

金匱方: 治婦人六十二種風, 及腹中血氣刺痛.

紅藍花一兩. 酒一大升, 煎減半, 頓服一半, 未止再服.²⁷⁾

六十一卷 坐月門 (下卷, p.282)

金匱方: 當歸散, 婦人妊娠, 宜常服.

當歸, 黃芩, 芍藥, 芎藭各一斤, 白朮半斤. ○右杵爲散, 酒調服方寸匙, 日再. 妊娠常服即易產, 胎無苦疾. 產後百病悉主之.²⁸⁾

六十四卷 產後門 (下卷, p.339)

金匱方: 枳實芍藥散, 治產後腹痛, 煩滿不得臥.

枳實燒令黑勿太過, 芍藥等分. ○右杵爲散, 每服方寸匙, 日三服, 並主癰腫, 以麥粥下之.²⁹⁾

六十八卷 小兒門 (下卷, p.399)

金匱方: 救卒死而吐利, 不知是何病.

狗屎一丸絞取汁, 以灌之無濕者水煮, 乾者取汁.³⁰⁾

고찰

우리나라의史料에 나타나는『傷寒論』과 관련한 기록은 高麗 文宗 12년(1059) 9월에 忠州牧이 『黃帝八十一難經』, 『玉川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原十八論』, 『張仲卿五臟論』을 간행하여 진상하였다³¹⁾는 것이 최초이다. 또한 1091년 6월에 宋의 哲宗이 高麗에 요청한 醫書 중에 『張仲景方』 15권이 있는데³²⁾, 이때는 宋에서 1056년에 校正醫書局을 설치하여 『傷寒論』 10卷과 『金匱玉函經』 8권을 정리³³⁾한 이후로서 忠州牧이 刊行한 『傷寒論』이 宋本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

22) 金匱18-6

23) 「禽獸魚蟲禁忌并治第二十四」의 조문

24) 「果實菜穀禁忌并治第二十五」의 조문들임.

25) 「禽獸魚蟲禁忌并治第二十四」의 조문

26) 「禽獸魚蟲禁忌并治第二十四」의 조문

27) 金匱22-16

28) 金匱20-9

29) 金匱21-5

30) 「雜方第二十三」의 조문

31) 김두중 : 韓國醫學史, p. 124

32) 김두중 : 상계서, p. 118

33) 王琦 : 傷寒論研究, p. 23

나, 이 『張仲景方』은 『隋書·經籍志』에 기재된 『張仲景方』 15卷³⁴⁾과 같은 책으로 中國에서는 이미 佚失되었기 때문에 高麗에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統一新羅 時代에 醫學의 敎授科 目이었던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³⁵⁾과 함께 『傷寒論』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 『傷寒論』이나 『張仲景方』이 日本의 康平本(1060)과 같이 宋本과 어떤 형태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³⁷⁾.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收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巢氏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의 서적³⁸⁾에도 『傷寒論』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醫書도 우리나라에 『傷寒論』을 소개하는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時代에 만들어져 朝鮮 太祖때까지 醫學敎育의 자료로 사용된 『鄉藥惠民經驗方』에는 “傷寒”이라는 篇名이 존재하고 있는데³⁹⁾, 이 책은 『鄉藥集成方』에 29條文⁴⁰⁾이 인용되어 있으나 『傷寒論』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鄉藥集成方』은 모두 57大綱門 959條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高麗時代에 나온 『鄉藥惠民經驗方』, 『濟衆立效方』 등이 인용되어 있어서 高麗末에서 朝鮮 初期까지의 鄉藥研究를 집대성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⁴¹⁾. 그 중에 권5에서 권8까지가 「傷寒門」이며, 그 외에도 『傷寒論』 및 『金匱要略』 관련 조문들이 여러 문에 걸쳐서 다수 인용되어 있다.⁴²⁾ 따라서 우리나라의 醫書 가운데 『傷寒論』을 인용한 최초의 서적은 『鄉藥集成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鄉藥集成方』의 편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鄉藥集成方』에서는 五卷에서 八卷까지가 「傷寒門」인데, 이것은 「風病門」에 이어 전체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전체 질병 중에서 傷寒病을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風病과 더불어 최초의 4권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42권 중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風病과 傷寒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하여 많이 진보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一卷에서 十卷까지 「風病門」, 「傷寒門」, 「熱病門」, 「暑病門」, 「濕病門」, 「積熱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風寒 暑濕燥火의 六氣에 의한 분류를 시도한 『東醫寶鑑』 「雜病篇」 등의 편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六氣중에서 燥病에 대해서는 별도의 門이 보이지 않으며, 火病의 경우에도 熱病이나 積熱 등으로 되어 있어서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다.

표 1. 『鄉藥集成方』의 目錄⁴³⁾

鄉藥集成方 目錄
鍼灸目錄
第一卷 風病門
第二卷 風病門
第三卷 風病門
第四卷 傷寒門
第五卷 傷寒門
第六卷 傷寒門
第七卷 傷寒門
第八卷 熱病門 暑病門 濕病門
第九卷 積熱門 瘧病門
…(下略)…

표 2. 『鄉藥集成方』 「傷寒門」의 세부 목차

卷第五 傷寒門 可汗形證 不可汗形證 可吐形證 不可吐形證 可下形證 不可下形證 可火形證 不可火形證 可水形證 不可水形證 可瀉形證 中風傷寒 傷寒時氣 傷寒疫癘 傷寒結胸 傷寒潮熱 傷寒譫語	卷第七 傷寒發狂 傷寒剛瘕 傷寒嘔吐 傷寒鼻衄 傷寒吐血 傷寒心腹痞滿 傷寒心腹脹痛 傷寒口瘡 傷寒狐惑 傷寒下部瘰癧 傷寒大便不通 傷寒小便不通 傷寒熱毒攻眼 傷寒百合
卷第六 傷寒煩渴 傷寒煩躁 傷寒厥 傷寒頭痛 傷寒喘 傷寒陰陽易 傷寒陰毒 傷寒陽毒 傷寒兼食毒 傷寒發斑 傷寒發黃 傷寒發豌豆瘡	卷第八 傷寒後夾勞 傷寒後勞復 傷寒後食復 傷寒後骨節煩疼 傷寒餘熱不退 傷寒後虛煩 傷寒後虛羸盜汗不止 附虛汗 傷寒後心虛驚悸 傷寒後嘔噦 傷寒後不得睡 傷寒後虛損夢洩 傷寒後雜病 可灸形證 不可灸形證

『鄉藥集成方』 「傷寒門」의 세부목차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5권에는 ‘可…’, ‘不可…’의 조문 및 ‘中風傷寒’, ‘傷寒時氣’, ‘傷寒疫癘’과 같은 감별증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5권 말에서 7권까지는 結胸, 潮熱, 譫語 등과 같이 傷寒病의 다양한 證候名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 8권에서는 傷寒病이 회복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후유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可灸’와 ‘不可灸’는 5권이 아니라 8권의 맨 마지막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門의 篇末에 ‘灸法’을 수록한 『千金要方』⁴⁴⁾이나 ‘針灸法’을 싣고 있는 『東醫寶鑑』⁴⁵⁾과 같이 편찬자의 의도적인 편집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판본에 나타나는 ‘三陰三陽’의 篇名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鄉藥集成方』이 『傷寒論』이나 『金匱要略』과 같은 仲景書보다는 『太平聖惠方』과 같은 方書を 기본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可…’, ‘不可…’ 篇名에 붙인 “形證”이라는 단어는 宋本 계열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金匱玉函經』과 『太平聖惠方』에 포함된 “高

34) 王琦 : 상계서, p. 9

35) 김두중 : 상계서, p. 66

36) 김두중 : 상계서, p. 70

37) 『張仲景方』은 宋本과 다른 판본이었기 때문에 中國에서 요청한 것으로 생각되며, 忠州牧이 刊行한 『傷寒論』은 新雕한 것을 進하여 秘閣에 藏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宋本을 收入하여 再刊行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38) 김두중은 이들 方書가 醫經과 함께 統一新羅 時代에 이미 收入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중 : 상계서, p. 70)

39) 김두중 : 상계서, pp. 155-156

40) 김두중의 『韓國醫學史』에는 26개 條文, 김남일 등의 『韓國韓醫學史再定立』에서는 29개 條文으로 되어 있다.

41) 김두중 : 상계서, p. 216

42) 김신근 : 韓醫藥書攷, pp. 44-45

43) 盧重禮 外 : 鄉藥集成方, 目錄.

44) 孫思邈 : 千金要方.

45) 許浚 : 東醫寶鑑.

繼沖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⁴⁶⁾, 이것은 『鄉藥集成方』에서 인용한 仲景書가 宋代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古本의 계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鄉藥集成方』에 수록된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관련 조문에 대하여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전체 57門 중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관련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17개 門이며, 『傷寒門』과 『救急門』이 2개 이상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고 나머지 문에서는 각각 1개의 조문만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救急門』에서는 주로 『金匱要略』의 『雜療方』 및 『食禁 3篇』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일 편의 조문은 모두 1개의 조문으로 처리하였으나 인용문의 실제 분량은 가장 많다. 이는 鄉藥論이 추구하던 救急醫學으로서의 특징⁴⁷⁾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鄉藥集成方』 각 문별로 수록된 傷寒·金匱 관련 조문

門	條文數
風病門	1
傷寒門	8
暑病門	1
勞瘵門	1
大小便門	1
心痛門	1
痰飲門	1
嘔吐門	1
噎膈門	1
脾胃門	1
折撲跌傷門	1
中毒門	1
救急門	3
女陰門	1
妊娠門	1
產後門	1
小兒門	1
총계	26

또한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傷寒·金匱 관련 조문을 인용서적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중에서 인용표시가 "金匱方"인 조문이 14개로 가장 많으며, "傷寒論"이 7개 조문, "張仲景"이 4개 조문이며 "金匱玉函"이 1개 조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판본과 비교해보면 『金匱要略』에 나타나는 조문이 16개로 가장 많고, 『傷寒論』에 나타나는 조문은 모두 7개, 『傷寒論』의 異本人인 『金匱玉函經』에 나타나는 조문이 1개의 순서이며,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조문이 2개 있다. 조문의 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張仲景方』은 현재의 『金匱要略』과 공통점이 많은 판본으로 생각된다. 또한 『金匱方』은 현재의 『金匱要略』과 거의 유사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佚失條文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완전히 동일한 판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金匱玉函經』의 경우에는 인용 조문이 단 1개 밖에 없지만, 朝鮮初期에는 이미 『金匱玉函經』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것은 山田

의 『傷寒論集成』(1789)에서 최초로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보다 시기적으로 매우 빠르며 중국에서도 이미 元代 이후로는 인용서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⁴⁸⁾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조문이 『傷寒論』에는 없는 『金匱玉函經』 『附遺』篇의 조문⁴⁹⁾인 것으로 보아 清代 陳世傑 復刊本の 眞僞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⁵⁰⁾, 적어도 『附遺』篇은 陳世傑의 조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4. 『鄉藥集成方』에 수록된 傷寒·金匱 관련 조문의 인용서적별 분석

인용부호	現在版本 條文數	傷寒論	金匱要略	金匱玉函經	없음
張仲景	4		3		1
傷寒論	7	7			
金匱方	14		13		1
金匱玉函	1			1	
계	26	7	16	1	2

또한 『鄉藥集成方』 이외에도 朝鮮初期에는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영향을 받은 醫書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朝鮮初期의 대표적인 의서인 『醫方類聚』의 引用書目에는 『傷寒論』, 『傷寒論註解』, 『通眞子傷寒括要』, 『南陽活人書』, 『無求子活人書』, 『傷寒活人書』⁵¹⁾, 『傷寒百問歌』, 『傷寒百證歌』, 『傷寒類書』, 『傷寒明理論』, 『傷寒直格』, 『傷寒指掌圖』, 『金匱方』, 『王氏脈經』, 『巢氏病源』, 『千金方』, 『千金翼方』 등의 『傷寒論』 및 『金匱要略』 관련 서적이 인용되어 있다.⁵²⁾ 그리고 권27에서 권63까지 총37권이 「傷寒門」으로 총52권인 「小兒門」, 다음으로 분류가 많으며⁵³⁾, 『金匱要略』의 여러 조문들도 각 문에 분류되어 인용되고 있다⁵⁴⁾. 또한 이외에도 朝鮮前期에는 『傷寒類要』, 『傷寒類書』, 『傷寒活人指掌圖』, 『傷寒賦』 등의 書名이 나타나는데⁵⁵⁾, 이들 서적은 모두 현존하는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조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傷寒病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으로 조선전기 傷寒研究의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鄉藥集成方』에 인용되어 있는 『傷寒論』 및 『金匱要略』 관련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57개 門 중에서 17개 門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관련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傷寒門」과 「救急門」을 제외하면 모두 1개의 조문만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부호로 분류하면 「金匱方」이 14개, 「傷寒論」이 7개, 「張仲景」이 4

46) 李頤保 編著 :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園苑出版社, 2000, pp. 145-150, 255.
47) 김호 :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pp. 46-47

48) 영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 『金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1):8-13, 2002
49)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 108
50) 李辰生 : 平『金匱玉函經』考, 中醫雜誌, 4:46-48, 1955
51) 『南陽活人書』, 『無求子活人書』, 『傷寒活人書』는 모두 朱肱의 동일한 저작으로 생각된다. 비슷하게 劉純의 著書가 『醫經小學』와 『小學醫經』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52) 김신근 : 상계서, pp. 94-95
53) 김신근 : 상계서, pp. 96-97, 103-104
54) 필자 등의 조사에 의하면 『金匱要略』의 조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있다.
55) 김두중 : 韓國醫學史, pp. 266-271

개, '金匱玉函'이 1개 의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 통용되는 판본과 비교해보면 『金匱要略』에 16개, 『傷寒論』에 7개, 『金匱玉函經』에 1개의 동일조문이 존재하며, 2개 조문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金匱玉函經』에서 인용된 1개 條文은 『金匱玉函經』이 朝鮮初期 이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仲景의 著作들은 朝鮮初期 이전에 수입되어 韓國醫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鄉藥集成方』 이외의 醫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염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 『金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1):8-13, 2002
2. 김두중 :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98
3. 김신근 :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4. 김호 :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5. 盧重禮 外 : 鄉藥集成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6. 段光周, 王久源, 吳潛智 編 : 金匱要略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7. 孫思邈 : 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8. 王琦 : 傷寒論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9. 李順保 編著 :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園苑出版社, 2000
10. 李辰生 : 平『金匱玉函經』考, 中醫雜誌, 4:46-48, 1955
11. 張啓基, 王輝武 合編 : 傷寒論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4
12.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13. 張仲景 : 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14.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4